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과 공격성과의 관계

전미숙¹ · 김현옥²

이서초등학교¹, 전북대학교 간호대학²

= Abstract =

Relationship of Stress, Coping Behaviors,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School-Age Children

Mi Suk Jeon¹ · Hyeon Ok Kim²

Yiseo Elementary School¹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²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tress, coping behaviors,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school-age children.

Methods: The data was collect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om 499, 5th and 6th graders from five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Jollabuk-do Province, Korea. Subjects completed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Stress, Coping Behaviors, Depression and Aggression.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15.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s of stress, coping behaviors, depression and aggression were 1.48 ± 0.45 , 2.03 ± 0.50 , 14.09 ± 8.27 and 2.26 ± 0.66 , respectively.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that could be seen in stress ($r=.436$, $p<.001$), coping behaviors ($r=.500$, $p<.001$), as well as depression ($r=.333$, $p<.001$) in relation to aggression. The variables of aggression in school-age children were stress, coping behaviors, depression,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and gender which explained 40.4% of the cases.

Conclus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current intervention program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curb aggression in school-age children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to decrease stress, coping behaviors and depression.

Key Words: child, stress, coping behavior, depression, aggression

서 론

※이 논문은 2013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3).

교신저자: 김현옥,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산2-20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전화번호: 063-270-3120, 팩스번호: 063-270-3127

E-mail: khok@jbnu.ac.kr

원고접수: 2013년 4월 29일, 원고채택: 2013년 6월 3일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학교폭력은 우리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전국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전체 학생 139만 명 중 12.3%인 17만 명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학교폭력은 교실(25.0%), 화장실 또는 복도(9.6%), 온라인과 휴대전화(7.7%)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협박이나 욕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과 비방 등의 언어폭력(51.2%)과 집단 따돌림(13.3%)이 전체의 64.5%를 차지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2).

학교폭력은 공격적 행동이나 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으로, 학교 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초기 학령기에 형성된 공격성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쉽게 감소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격렬한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아동기의 공격성이 청소년의 비행과 폭력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성인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낳게 한다(Kim과 Kim, 2007). 아동은 학령전기를 지나면서 직접적인 상황에 대해 거친 신체적 공격으로 반응하는 것은 감소하나, 점점 더 의도적이고 보복적이고 상징적이 되며 말다툼, 싸움, 괴롭힘, 욕설, 따돌림, 차별, 학대 등 공격적 행동이 증가한다(Kerig & Wenar, 2006). 공격적인 아동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맺게 되고, 또래 집단의 거부는 다시 아동으로 하여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도록 야기하며, 반사회적인 또래 집단을 형성하여 비행 청소년 문제의 중요한 전조가 되기도 한다(Altepeter & Korger, 1999).

아동기는 성장을 재촉하는 압력과 사회적 규제가 충돌하는 시기로서, 가족 밖의 다른 성인이나 또래, 책, 매스컴의 영향을 받으며, 가정이나 이웃에만 국한되었던 생활환경이 학교라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과 다양한 사회적 적응을 요구 받게 된다. 더구나 급속한 사회변화로 아동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많아져 아동들은 미처 준비가 되기도 전에 다양하고 또 고도의 성취를 해야 하므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Elkind, 2001). 이러한 아동의 스트레스는 공격성을 유발하는 관련요인으로, 일상적 스

트레스가 높은 아동들이 정보처리과정의 왜곡을 보여서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Kim과 Park, 2006).

아동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이 좌우되며 심지어는 사회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적응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대처행동에 의해 완충된다(Dubow & Tisak, 1989).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극적, 공격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Noh와 Lee, 2010).

또한 우울은 아동과 청소년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장애이며 성인과는 달리 아동 우울은 주로 공격적인 행동, 신체증상, 짜증, 분노로 표현되는 행동상의 문제를 나타내는 가면 우울의 형태로 나타난다(Kim, 2008).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격성은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공격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공격성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대인 관계적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돕기 위해 공격성과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학대아동 및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 변인들의 관계연구(Kim과 Park, 2006),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공격성 간의 관계연구(Noh와 Lee, 2010), 일상적 스트레스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연구(Lee, 2011), 용서상담(Kim 과 Yi, 2012)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격성의 변화를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공격성과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이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과 공격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정도를 파악하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우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공격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학령기 아동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중재법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과 공격성의 정도를 확인한다.
- 학령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를 확인한다.
-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과 공격성의 정도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우울이 공격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과 공격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표본크기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2013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 여 초등학생이며 근접모집단은 전라북도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모집단의 크기에 의해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Krejcie와 Morgan (1970)의 자료에 근거하여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이 속해 있는 우리나라 10~14세 인구가 2010년 현재 3,173,226명(Statistics Korea, 2012)이고, 일반적으로 모집단이 100만명 이상인 경우 384명 이상을 적절한 표본크기로 제안하고 있으므로(Krejcie & Morgan, 1970) 최소 표본수를 384명으로 정하고 난 후, 전라북도에 W군 지역에 위치한 5개 초등학교를 임의 표출한 뒤, 해당 학교의 5, 6학년 2개 학급씩을 무작위 표출하였다.

전체대상자 528명 중에서 설문에 응하지 않은 사람 9명을 제외한 51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회수율은 100.0%였고,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20부를 제외하고 자료 분석에 최종 포함된 연구대상자는 5학년 206명, 6학년 251명으로 총 499명이었으며, 자료 분석률은 96.2%이다.

3. 연구도구

1)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신체에 가해진 어떤 요구에 대하여 신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이고 비특이적인 반응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Min과 Yoo (1998)가 개발한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3개월 매우 슬프거나 괴롭거나 짜증나게 했던 생활 사건들을 측정하는 것으로 부모관련 20문항, 친구관련 17문항, 학업관련 8문항, 교사관련 3문항 등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리커트 척도이고, 문항별 점수를 합한 총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타당도는 도구개발 당시 구인타당도 및 공인타당도($r=.55$,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구개발 당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5였다.

2) 스트레스 대처행동

스트레스 대처행동이란 의도적이고 목적적인 반응을

포함한 개인의 차원을 초과하는 어떤 특별한 내외적 요인을 다루려는 끊임없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Min과 Yoo (1998)가 개발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적극적 대처행동 9문항, 소극적 대처행동 11문항, 공격적 대처행동 6문항, 회피적 대처행동 9문항,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5문항 등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였다.

3) 우울

우울이란 정상적인 기분변화로부터 병적인 기분상태까지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수면장애, 피로, 기쁨과 흥미 및 동기 상실, 외부세계에 대한 무관심, 절망, 비판, 침울함, 무력감 및 무가치함, 활동억제, 자존감 저하, 자기비하 등을 나타내는 감정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Kovacs (1983)가 개발한 아동용 우울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Cho와 Lee (1990)가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한국형 소아우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우울정서 5문항, 행동장애 7문항, 흥미상실 7문항, 자기비하 4문항, 생리적 증상 4문항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해 3개의 서술문 중 지난 2주일 동안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서술문 한 개를 골라 표시하는 자가 우울 평정척도로, 우울의 정도에 따라 0점에서 2점을 주게 되어 0점에서 54점 사이에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도구는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한 총점이 22점에서 25점인 경우 약간 우울 상태, 26점에서 28점은 상당한 우울 상태, 29점 이상은 매우 심한 우울 상태를 나타낸다. 도구개발 당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였다.

4) 공격성

공격성이란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 지속적으로 부정

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타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나 시도를 포함하고, 타인을 언어적·신체적·심리적으로 위협할 목적을 가진 작간접의 행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Buss와 Perry (1992)가 개발한 공격성 질문지를 Seo와 Kwon (2002)이 개발한 '한국판 공격성 검사지'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공격성 9문항, 언어적 공격성 5문항, 분노감 5문항, 적대감 8문항 등 총 27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분노감 1문항을 제외한 26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이고 1개의 부정문항에 대해서는 역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징의 수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 (신체적 공격성 .74, 언어적 공격성 .73, 분노감 .67, 적대감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 (신체적 공격성 .75, 언어적 공격성 .73, 분노감 .62, 적대감 .83)였다.

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는 2013년 3월 11일부터 2013년 3월 15일 사이에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학교장, 보건교사, 담임교사의 검토를 받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얻었으며, 연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 참여시 유의성과 불이익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것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519부를 배포하여 바로 회수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행동, 우울, 공격성의 정도는 Descriptive statistics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행동, 우울, 공격성의 정도 차이는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 행동, 우울,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확인을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성 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499명으로 5학년이 57.3% (286명), 6학년이 42.7% (213명)이었으며, 남학생이 52.5% (257명), 여학생이 47.5% (242명)이었다. 대상자가

지각한 경제적 상태는 좋다 32.3% (161명), 보통이다 55.5% (277명), 좋지 않다 12.2% (61명)이었다. 학교 생활은 만족스럽다 51.7% (258명), 보통이다 37.9% (189명), 만족스럽지 않다 10.4% (52명)이었다.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행동, 우울, 공격성 정도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행동, 우울과 공격성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스트레스는 최소 1.00점에서 최고 3.38점으로 평균 평점 1.48 (± 0.45)이었으며, 스트레스 대처 행동은 최소 1.00점에서 최고 4.00점으로 평균 평점 2.03 (± 0.50)이었다. 스트레스 대처 행동 하위영역별로 평균 평점 점수를 살펴 보면 적극적 대처 행동이 2.49 (± 0.83)로 가장 높았고,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 행동이 1.99 (± 0.83), 소극적 대처 행동이 1.98 (± 0.67), 회피적 대처 행동이 1.86 (± 0.64), 공격적 대처 행동이 1.72 (± 0.70)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최소 0점에서 49점으로 평균 14.09 (± 8.27) 점이었으며, 대상자의 우울 상태는 약간 우울하다가 11.0% (55명), 상당히 우울하다가 4.2% (21명), 매

Table 1. Degree of Stress, Coping Behaviors, Depression and Aggression

(N=499)

Category	Mean (SD) or n(%)	Range	Minimum	Maximum
Stress	1.48 (0.45)	1~4	1.00	3.38
Coping behaviors	2.03 (0.50)	1~4	1.00	4.00
Active	2.49 (0.83)	1~4	1.00	4.00
Passive	1.98 (0.67)	1~4	1.00	4.00
Aggressive	1.72 (0.70)	1~4	1.00	4.00
Avoidant	1.86 (0.64)	1~4	1.00	4.00
Social support	1.99 (0.83)	1~4	1.00	4.00
Depression	14.09 (8.27)	0~54	0.00	49.00
Normal state	365 (79.2)			
Mild depression state	55 (11.0)			
Moderate depression state	21 (4.2)			
Severe depression state	28 (5.6)			
Aggression	2.26 (0.66)	1~5	1.19	4.70
Physical aggression	2.22 (0.70)	1~5	1.00	4.56
Verbal aggression	2.22 (0.82)	1~5	1.00	5.00
Anger	2.53 (0.68)	1~5	1.00	4.60
Hostility	2.17 (0.85)	1~5	1.00	5.00

우 심하게 우울하다가 5.6% (28명)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은 최소 1.19점에서 최고 4.70점으로 평균 평점 2.26 (± 0.66)이었다. 공격성의 하위영역별로 평균 평점 점수를 살펴보면 분노감이 2.53 (± 0.68)으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이 각각 2.22 (± 0.72), 2.22 (± 0.82), 적대감이 2.17 (± 0.85) 순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 공격성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

처행동, 우울과 공격성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t=3.731$,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5학년이 6학년보다 대처행동 점수가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공격성($t=2.340$ $p=.020$)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공격성의 하위 영역 중 신체적 공격성($t=4.546$, $p<.001$)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공격성 정도가 높았다.

대상자가 지각한 경제적 상태는 스트레스($F=8.108$,

Table 2. The Difference of Stress, Coping Behaviors, Depression, Aggression and Sub-area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4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tress	Coping behaviors	Depression	Aggression	Sub-areas of Aggression			
			M (SD)	M (SD)	M (SD)	M (SD)	Physical aggression	Verbal aggression	Anger	Hostility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Grade	5th	286	1.48	2.10	13.68	2.26	2.19	2.24	2.53	2.18
		(57.3)	(0.49)	(0.50)	(8.07)	(0.67)	(0.69)	(0.84)	(0.67)	(0.86)
	6th	213	1.47	1.93	14.66	2.26	2.25	2.19	2.52	2.15
		(42.7)	(0.46)	(0.48)	(8.51)	(0.66)	(0.71)	(0.80)	(0.70)	(0.84)
			$t=0.045$	$t=3.731$	$t=-1.304$	$t=0.054$	$t=-0.846$	$t=0.676$	$t=0.141$	$t=0.449$
			$p=.964$	$p<.001$	$p=.193$	$p=.957$	$p=.398$	$p=.499$	$p=.888$	$p=.654$
Gender	Male	257	1.51	2.02	14.08	2.33	2.35	2.28	2.55	2.18
		(52.5)	(0.50)	(0.55)	(8.33)	(0.70)	(0.71)	(0.89)	(0.67)	(0.89)
	Female	242	1.44	2.03	14.12	2.19	2.07	2.14	2.50	2.15
		(47.5)	(0.39)	(0.44)	(8.22)	(0.62)	(0.66)	(0.73)	(0.69)	(0.80)
			$t=1.865$	$t=-0.212$	$t=-0.046$	$t=2.340$	$t=4.546$	$t=1.959$	$t=0.940$	$t=0.350$
			$p=.063$	$p=.832$	$p=.963$	$p=.020$	$p<.001$	$p=.051$	$p=.348$	$p=.726$
Economic status	Good ^a	161	1.43	2.18	11.71	2.26	2.21	2.27	2.51	2.15
		(32.3)	(0.50)	(0.54)	(8.08)	(0.70)	(0.72)	(0.89)	(0.71)	(0.90)
	Middle ^b	277	1.46	1.96	14.45	2.23	2.19	2.18	2.51	2.12
		(55.5)	(0.39)	(0.43)	(7.88)	(0.62)	(0.67)	(0.75)	(0.66)	(0.77)
	Bad ^c	61	1.69	1.93	18.77	2.42	2.35	2.25	2.66	2.45
		(12.2)	(0.51)	(0.57)	(8.33)	(0.77)	(0.77)	(0.92)	(0.68)	(1.01)
			$F=8.108$	$F=11.841$	$F=17.817$	$F=2.131$	$F=1.329$	$F=0.660$	$F=1.242$	$F=4.110$
			$p<.001$	$p<.001$	$p<.001$	$p=.120$	$p=.266$	$p=.518$	$p=.290$	$p=.017$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a, b < c	c, b < a	a < b < c					a, b < c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atisfied ^a	258	1.36	2.04	10.92	2.08	2.05	2.10	2.42	1.91
		(51.7)	(0.39)	(0.46)	(7.30)	(0.57)	(0.65)	(0.73)	(0.64)	(0.71)
	Moderate ^b	189	1.56	2.00	16.70	2.41	2.35	2.31	2.65	2.39
		(37.9)	(0.48)	(0.52)	(7.78)	(0.68)	(0.71)	(0.86)	(0.69)	(0.86)
	Not satisfied ^c	52	1.78	2.07	20.40	2.55	2.54	2.42	2.61	2.60
		(10.4)	(0.55)	(0.62)	(7.70)	(0.80)	(0.71)	(1.01)	(0.79)	(1.03)
			$F=26.754$	$F=0.461$	$F=52.496$	$F=19.902$	$F=17.286$	$F=5.436$	$F=6.699$	$F=27.939$
			$p<.001$	$p=.631$	$p<.001$	$p<.001$	$p<.001$	$p=.005$	$p<.001$	$p<.001$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a < b < c		a < b < c	a < b, c	a < b, c	a < c	a < b	a < b, c

$p<.001$), 스트레스 대처행동($F=11.841$, $p<.001$)과 우울($F=17.817$, $p<.001$)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 하위영역 중 적대감($F=4.110$, $p=.017$)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 우울, 적대감은 경제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지할수록 높았으며, 대처행동 점수는 낮았다.

학교생활 만족여부는 스트레스($F=26.754$, $p<.001$), 우울($F=52.496$, $p<.001$), 공격성($F=19.902$, $p<.001$), 공격성 하위영역에서는 신체적 공격성($F=17.286$, $p<.001$), 언어적 공격성($F=5.436$, $p<.001$), 분노감($F=6.699$, $p<.001$), 적대감($F=27.939$, $p<.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수록 스트레스, 우울, 공격성 정도가 높았다.

4. 대상자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과 공격성 정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과 공격성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는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436$, $p<.001$)가 있었으며, 공격성의 하위영역인 적대감, 신체적 공격성, 분노감, 언어적 공격성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공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500$, $p<.001$)가 있었으며, 공격성의 하위영역 모두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우울도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333$, $p<.001$)가 있었으며, 공격성의 하위영역중 언어적 공격성을 제외한 적대감, 신체적 공격성, 분노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5. 대상자의 공격성 정도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

대상자의 공격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일반량 분석결과 공격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성별, 학교생활 만족여부와 공격성과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을 독립변수로 하고, 불연속변수를 Dummy 변수로 전환 한 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85를 넘지 않았고, 허용도(Tolerance)는 0.1 이하인 변인이 없었으며 분산확대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가 10을 넘는 변인이 없어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공격성 정도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68.493$, $p<.001$), 스트레스 대처행동($\beta=.456$, $t=12.205$, $p<.001$), 우울($\beta=.173$, $t=3.932$, $p<.001$), 학교생활 만족($\beta=.157$, $t=4.140$, $p<.001$), 스트레스($\beta=.168$, $t=3.814$, $p<.001$), 성별($\beta=-.091$, $t=-2.619$, $p=.009$) 다섯 가지 변수가 공격성 정도에 40.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의 변수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tress, Coping Behaviors, Depression and Aggression

(N=499)

Variables	Aggression r(p)				
	Total	Physical aggression	Verbal aggression	Anger	Hostility
Stress	.436 (<.001)	.380 (<.001)	.280 (<.001)	.308 (<.001)	.474 (<.001)
Coping behaviors	.500 (<.001)	.377 (<.001)	.544 (<.001)	.311 (<.001)	.486 (<.001)
Depression	.333 (<.001)	.351 (<.001)	.087 (<.053)	.251 (<.001)	.376 (<.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Aggression

(N=499)

Category	B	S.E	β	t	p	Adjusted R ²	F (p)
(Constant)	9.049	3.875		2.335	.020		68.493 (<.001)
Coping Behaviors	.411	.033	.456	12.505	<.001	.248	
Depression	.376	.096	.173	3.932	<.001	.354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5.624	1.358	.157	4.140	<.001	.378	
Stress	.139	.036	.168	3.814	<.001	.397	
Gender (man)*	-3.270	1.248	-.091	-2.619	.009	.404	

*Dummy variables

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 학교생활만족, 스트레스, 성별 순으로 나타났다.

고 찰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과 공격성 정도를 알아보고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건강증진행위를 돕는 중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진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우울은 공격성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평균 평점 1.48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Jeon과 Kim (2012)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1.47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Lee (2002)의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1.44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본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선행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자체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스트레스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학령기 아동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원인과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온 아동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관찰과 지도와 함

께 상담을 활용하여 가정의 부모님들과 연계하는 스트레스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정도는 4점 만점에서 평균 2.03점으로 중간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Song (2013)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 정도가 2.30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영역에서는 적극적 대처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Song (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적극적 대처란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인지적·행동적 행위로 학생들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며,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문제해결이나 정서적 위안을 타인에게서 찾는 것을 말하는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정보나 충고를 구한 다거나 혹은 문제를 위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며,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가는 행동도 포함된다(Min과 Yoo, 1998b; Song, 2013).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는 아동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스트레스 대처행동 유형을 파악해 학생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 되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방법을 세울 때, 또는 정보나 충고를 구하거나 도움을 구할 때 필요한 지지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정도는 최저 0점에서 최대 54점의 범위에서 평균 14.09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경기도 초등학교 5, 6학

년을 대상으로 한 Jeong (2012)의 연구에서 11.40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은 지역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Song (2005)의 연구에서 우울정도가 14.40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는 유사하였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5학년의 우울정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초등학교 5학년의 우울정도를 비교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점수가 22점 이상인 우울한 아동이 20.8%로 나타났는데, 이는 Song (2005)의 연구에서 우울점수가 22점 이상인 아동이 20.1%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우울한 아동은 흥미상실, 자기 비난,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고 희망이 없으며, 에너지가 부족하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복통이나 두통을 일으키기도 한다(Hazeell, 2002). 따라서 학교에서는 2012년부터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울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상담 및 우울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우울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밝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공격성 정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2.26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Shin (2012)의 연구에서 2.31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 (2009)의 연구에서 공격성 정도가 2.64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2012)의 연구에서 공격성 정도가 2.46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 보다는 본 연구대상자의 공격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결과 중학생의 공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ong (2013)의 연구에서 일반 청소년의 공격성 정도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과 공격성의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공격성과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2011)의 연구에서 공격성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5학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보건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대상자가 지각한 경제적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과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적대감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가정경제수준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아동이 보통이거나 좋다고 응답한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경제수준이 나쁠수록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Yoo와 Park (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경제수준이 보통이거나 좋지 않다고 응답한 아동이 좋다고 응답한 아동보다 스트레스 대처행동 점수가 낮았다. 또한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그리고 보통인 경우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우울점수가 높았다. 경제 상태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과의 관계에 대하여 Yun (2010)의 연구에서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대처 점수가 더 높으며, 우울 점수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적대감은 가정경제수준이 나쁘다고 지각한 아동들이 보통이거나 높다고 인지한 아동들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won과 Jeong (2010)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아동들의 공격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들 결과는 가정경제수준이 나쁘다고 지각한 아동들이 스트레스, 우울과 공격성의 적대감 수준이 더 높았으며, 경제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아동들이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경제적 상태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과 공격성에 유의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학교생활 만족여부는 스트레스, 우울과 공격성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어서, 학교생활

에 대해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아동일수록 스트레스와 우울, 공격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2010)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며,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문제행동을 보인 학생들이 학교 규칙에 적응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Kang (2010)의 연구에서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Kim (2012)의 연구에서도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우울정서 상태가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교류해야 하는 교우관계 적응과 적극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학교행사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 할 때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사정 및 심층 분석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은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 (2011)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공격성이 정적상관을, Shin (2012)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공격성이 정적상관을,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Noh와 Lee (2010)의 연구에서 우울과 불안이 공격성과 정적상관을 보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우울이 공격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학교에서 보건교사는 학령기 아동들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들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사용할 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행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와 상담을 실시하여 지지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학령기 아동들이 정신건강 증진을 통하여 밝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행동, 우울, 학교생활 만족여부, 성별은 공격성의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이며, 공격성의 정도를 40.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Noh와 Lee (2010)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극적 대처행동과 공격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자기조절 능력이 낮은 부자 가정과 남아들이 공격성 수준이 높았으며 이들이 공격성의 3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Shin (2012)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2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상과 같이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우울은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이므로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의 공격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재법 개발 및 학교보건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C지역 W군에 위치한 5개 초등학교의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대상자들의 표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으로 정보수집의 제한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보건 실무에서는 학령기 아동중 공격성 정도가 높은 아동을 위한 중재를 할 때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 학교생활 만족여부, 성별 등의 문제를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우울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공격성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

레스 대처행동, 우울과 공격성에 관한 설명력과 상관관계만 검증하여 이들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경로분석이나 공변량 구조분석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C지역 W군에 위치한 5개 학교를 임의 표출하였으므로 학령기 아동을 대표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농촌과 대도시 학생을 비교하는 연구를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과 공격성 정도 및 이들 변수간의 관계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은 공격성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스트레스는 공격성의 하위변수 중 적대감 요인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언어적 공격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울은 공격성의 하위변수 중 적대감 요인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 학교생활 만족여부, 성별은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약 40.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이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중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Altepeter TS, Korger JN. Disruptive behavior: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and conduct disorder. In Netherton SD, Holme D.(Eds.),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orders: A comprehensive textbook.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9; 118-138

Buss AH, Perry M.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2;63:452-459

Cho SC, Lee YS. Development of the Korean form of the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990;29(4):943-956

Choi CW. Effects of perceived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self identity on high school students'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2

Dubow EF, Tisak J.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1989; 60:1412-1423

Elkind D. We hurried child: Growing up too fast too soon (3rd ed).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2001

Han JY. The effects of forgiveness counseling program on the decrease of middle school boy's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University, 2009

Hazell P. Depression in children. British Medical Journal, 2002;325:229-231

Jeon MS, Kim HO.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tres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12;16(1):122-132

Jeong MK. The relationships between anger expression mode and anxiety/dep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2

Kang SH.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attachment,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o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2010;58(3):1-29

Kerig PK, Wenar C.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5th ed.) McGraw-Hill, New York, 2006

Kim CN, Yi EY. Effects of group forgiveness counselling program on the agg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12; 16(1):32-43

Kim EI. Effect of self-esteem and emotion regulation of elementary students on their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11

Kim JH, Park KJ. Children's aggression: Effects of

-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daily hassles, and emotional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06; 27(3):149-168
- Kim JW, Kim HJ.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aggression, temperament, home environment, and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07;16(2):85-93
- Kim IK. Relationships among stress, problem behavior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0
- Kim MY.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education program on the depression and cognitive errors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8
- Kim WH. A study on correlations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mputer game immersion, depressive tendencies, and school life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2012
- Krejcie RV, Morgan DW. Determining sample size for research activities. *Educ Psychol Meas* 1970; 30(3):607-610
- Kovacs M.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 a self-rated depression scale for school-aged youngster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ittsburgh, 1983
- Kwon YK, Jeong SH. Community SES,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 school adaptation and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010;41(3):379-402
- Lee JW. Relation of daily stress and coping style with health problems in 6th grade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02;6(1):39-52
- Lee JM.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betwee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daily stress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2011
- Min HY, Yoo AJ. Development of a daliy hassles scale for school age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98a;19(2):77-96
- Min HY, Yoo AJ. Development of daily hassles coping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98b;36(7):83-96
- Ministry of Education. The first condition of school violence complete enumeration survey. 2012
- Noh DH, Lee S. The influences of self-regulation and stress coping behaviors of low-income children on behavioral problems.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2010; 5(1):85-102
- Seo SG, Kwon SM. Brief report :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2;21(2):487-501
- Shin HJ. The effects of stress coping behavior, family strength and social support on agg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12
- Song, EJ. The relationship among internet addiction and learning stress depress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5
- Song HC. Utilization of school health clinic, stress, coping, self-esteem and stress response among elementar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3
- Song HJ.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on aggression, anger control, self-esteem and career maturity of juvenile delinqu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2013
- Statistics Korea.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0 [cited 2013. Mar 30]. Available from: URL:<http://kosis.kr/index/index.jsp>.
- Yoo Y, Park IS. Comparisons of stress, self-esteem and perception of parents' nurturing attitudes in school-age children between Korea and China. *Korean Parent Child Health J* 2010;13(1): 26-34
- Yun KH. The effect of Stress coping behaviors on children's depression and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0